

# 『東醫壽世保元』과 『傷寒論』의 聯關性에 관한 연구 - 傷寒六經을 중심으로 -

손덕칭 · 안택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 Abstract

###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Dongyisusebowon』 and 『Shanghanlun』 - Mainly about The Six-channels of Shanghan -

Sun Teh-Cheng, Ahn Taek-Won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

#### 1. Objectives

The study is purposed to find the role of the six-channels of shanghan(傷寒六經) on the relation between 『Dongyisusebowon(東醫壽世保元)』 and 『Shanghanlun(傷寒論)』

#### 2. Methods

The study is compared 『Euiwonlun(醫源論)』 with the process of study on the 『Shanghanlun(傷寒論)』, origin and theorsys of the Shanghan six-channels(傷寒六經).

#### 3. Results and Conclusions

Just as Dong-mu fully understood the concepts of 『Shanghanlun(傷寒論)』 through the six channels of Shanghan(傷寒六經) proposed by Chu-gueng(朱肱), the ideas of Differential Diagnostic System(辨證體系) of 『Shanghanlun(傷寒論)』 had much influence on 『Dongyisusebowon(東醫壽世保元)』. Therefore a new medical theory could be born.

**Key Words:** The Six-channels of Shanghan(傷寒六經), Dongyisusebowon(東醫壽世保元), Euiwonlun(醫源論), Chu-gueng(朱肱)

## I. 緒 論

『東醫壽世保元』은 不過 100餘年 前인 1894年 東武 李濟馬에 의해 著述되었으나, 四象醫學의 基本 原理라고 할 수 있는 部分들이 大蓋 難解한 哲學的 概念과 生疎한 單語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體系 또한 既存의 證治醫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던 것만큼 原理的인 接近이 어려 워 實際 臨床에서 運用하기에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sup>1)</sup>.

그러나 이렇게 難解한 醫學인 四象醫學은 東武 本人이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余 生於醫藥經驗五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 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 壽世保元”라 하고, “原

• 접수일 2006년 10월 31일; 승인일 2006년 11월 27일  
• 교신저자 : 손덕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57-7 동수원한방병원  
Tel : +82-31-210-0225 Fax : +82-31-210-0146  
E-mail : sam@hanmail.net

1)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992;4(1):5-28.

書中 張仲景所論 太陽病 少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 以病證名目而論之. 余所論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以人物名目而論之也. 二者 不可混看 又不可厭煩然後 可以探其根株而 採其枝葉也”라 하였던 것처럼, 既存의 證治醫學과는 一定한 因果關係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독창적인 醫學思想인 『東醫壽世保元』을 연구함에 있어서 『傷寒論』, 특히 “傷寒六經”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傷寒論』의 三陰三陽을 근거로 한 辨證體系는 仲景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나, 『傷寒論』의 三陰三陽이 “六經”이라 불리게 되고, 辨證의 大綱으로 확립된 것은 宋代의 朱肱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후에야 『傷寒論』의 辨證體系가 “六經辨證”으로 통용하게 되었다<sup>2)</sup>. 이러한 六經辨證 體系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도 사용되었으며, “三陰病證 皆少陰人病證, 少陽病證 卽 少陽人病證, 太陽病證 陽明病證則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病證 均有之 而少陰人病證 居多”라 하여 四象人別 辨證體系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

이와 같이 傷寒六經이 『傷寒論』과 『東醫壽世保元』의 聯關性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 대하여 明確하게 說明한 研究는 不足한 실정이었다. 이에 著者는 本 論文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1. 東武 李濟馬의 醫學史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을 근거로 始興期 以前の 醫學, 醫學의 始興期, 醫學의 中興期, 醫學의 復興期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2. 傷寒六經에 대해서는 『傷寒論』의 연구과정,

2) 瞿岳云. 中醫理論辯. 湖南科學技術出版社, 湖南, 1990: 76.

傷寒六經의 起源, 傷寒六經에 대한 各家學說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3. 고찰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설을 근거로 『東醫壽世保元』과 『傷寒論』의 醫學思想的 聯關性에 있어서 傷寒六經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 III. 本 論

### 1.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李濟馬의 醫學史觀

『東醫壽世保元』에서는 韓醫學의 역사를 크게 秦漢時代 張仲景이 일으킨 始興期, 宋代 朱肱을 中心으로 한 中興期, 元代, 明代 清代에 李梴, 龔信, 許浚을 中心으로 한 復興期인 3時期로 나누고 있다. 이에 著者는 『黃帝內經』, 『神農本草』가 著述된 始興期 以前の 時期를 포괄하여 各 時期에대한 李濟馬의 醫史學的인 觀點을 考察하고자 한다.

#### (1) 始興期 以前の 醫學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醫藥經驗 其來已久於神農黃帝之時 其說 可信於眞也而 本草 素問 出於 神農黃帝之時 其說 不可信於眞也”라 하여 中國歷史上 神話時期의 人物인 神農氏, 黃帝 때부터 내려온 醫學 經驗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神農本草經』과 『黃帝內經』의 著作年代가 그 時代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靈樞素問 假托黃帝 異怪幻惑 無足稱道 …… 此書亦是古人之經驗而 五臟六腑 經絡鍼法 病證修養之辨 多有所啓發則 實是醫家 格致之宗主而 苗脈之所自出也 …… 其理 有可考而 其說 不可盡信”이라 하여 비록 『黃帝內經』이 神話의 인물에 假託된 著書이나 五臟六腑, 12經絡, 鍼法, 病證, 養生思想 등 古人들의 啓發된 經驗은 後代 醫家들이 研究하는데 있어서 苗脈이 되어왔다는 것은 인정하고, 理致는 考察할 수 있으나, 學說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기를 당부하

고 있다. 즉 始興期 以前에는 初步의인 醫學思想만이 수록되었고, 實踐의인 臨床經驗들은 체계화되지 못한 時期로서, 醫家들이 그 醫學思想들을 참고하는 것에 그치기를 強調하고 있다.

(2) 醫學의 始興期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衰周秦漢以來 扁鵲有名而 張仲景 具備得之 始爲成家著書 醫道始興”라 하여 名聲만 있고 實體가 없는 扁鵲에 대해서는 舉論만 하였다. 醫道始興을 張仲景이라고 하였던 것은 醫學의 起源을 內經醫學이 아닌 傷寒醫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黃帝內經』의 醫學理論이 비록 기본적으로 비교적 완전한 體系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서 충실한 實踐經驗이 缺乏되었고, 특히 藥物方劑의 運用 方面에서의 經驗이 더욱 적었다. 이로 인하여 基礎理論과 臨床實踐 사이에 긴밀한 連繫가 어려워 理論의 實踐 指導作用에 難點이 많았다 하겠다<sup>3)</sup>. 이와 다르게 『傷寒論』은 『黃帝內經』의 熱性病을 전문분야로 다루어 六經에 의한 辨證論治를 確立하여, 그 후 풍부한 臨床經驗, 疾病에 대한 認識의 進步, 理論上的 發展이 이루어졌으니, 東武의 醫學은 처음부터 具體的인 症狀에 대한 實證醫學으로써 觀念論的인 문제보다는 體質의 特性에 따른 證候論的인 面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觀點이 醫道の 始興을 觀念論的인 內經醫學 보다는 證候論的인 傷寒醫學으로 보고있는 것이다<sup>4)</sup>.

(3) 醫學의 中興期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張仲景以後 南北朝隋唐醫繼之而 至于宋朱肱 具備得之 著活人書 醫道中興”이라 하여 張仲景을 이어 朱肱이 醫道를 中興시켰다고 보고 있다. 朱肱의 대표적인 著作은 『南陽活人書』로 이 책은 『傷寒論』의 整理와 闡釋에 있어서 龐安時的 『傷

寒總病論』에 비하여 平凡하면서도 妥當性이 있어 後世에 미친 影響도 크다<sup>5)</sup>. 이에 汪琥가 “仲景之大功臣”이라 하고, 徐靈胎도 “漢學之津梁”이라 비유하였다.

그러나 南北朝부터 宋代까지 1000년에 가까운 기간의 醫家들 中에서 傷寒學派의 한명인 朱肱만을 中興期의 主役으로 꼽은 것은 多少의 의외로 받아 들여져 왔다. 金<sup>6)</sup>은 朱肱이 『傷寒論』의 六經을 手足三陰三陽經으로 正義 내려 傷寒病을 『黃帝內經』의 經絡과 聯關지어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東武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三陰三陽者 辨證之同異也 其理 在於腹背表裏而 不必究其經絡之變也”라 하여 病證에 있어서 體質에 따라 治療가 다르므로 經絡의 變動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는 觀點과 相反된다고 하여 疑問을 提示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著者의 생각은 “考察”에서 논하고자 한다.

(4) 醫學의 復興期

“朱肱以後 元醫李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繼之而 至于明李梴 龔信 具備得之 許浚 具備傳之 著東醫寶鑑 醫道復興”이라 하여 金元四大家 中에서는 脾胃之氣를 補하는 것을 爲主로 한 李東垣과 滋陰降火法을 主張한 朱震亨 그리고 王好古와 危亦林이 醫道를 이었다고 評價하였다. 이들 中에서 既存의 韓醫學에서 추앙받던 金元四大家인 劉完素와 張從正이 빠지고, 危亦林과 王好古를 높이 評價한 것은 李濟馬 특유의 醫學史觀을 보여주는 部分이다. 이러한 見解는 『東醫壽世保元』 20餘種의 引用 文獻 中에서 劉完素와 張從正의 著書는 引用된 곳이 전혀 없고, 王好古와 危亦林의 引用 文獻은 各各 4개, 5개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sup>7)</su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明代 李梴의 『醫學入門』은 朝鮮 後期에 가장

3)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4:41.  
4) 金敬堯. 李濟馬의 醫學史觀에 대한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994;6(1):11-19.

5) 洪元植. 前揭書: 158.  
6) 金敬堯. 前揭書: 11-19.  
7)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의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993;5(1): 1-33.

많은 影響을 끼친 醫書이며, 龔信의 『醫鑑書』에 나와 있는 葛根解肌湯의 變方인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의 肝燥熱證 代表 處方인 葛根解肌湯, 熱多寒少湯, 葛根承氣湯 등이므로 비록 龔信이 四象體質은 몰랐지만, 太陰人의 裡病證에서 나타나는 肝燥熱證에 대한 病의 證候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藥物, 處方を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여겨져 李梴과 함께 “具備得之”라고 評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太陰人 病證 藥理에 대해 李濟馬가 “張仲景 略得影子而 宋元明諸醫 大半乎昭詳發明”이라 하여 太陰人의 引用文獻 18개 中 『傷寒論』이 3개(16.7%), 宋元明諸醫가 15개(83.3%), 그리고 唐宋明三代醫家の 太陰人經驗要藥 9개 中 4개가 龔信의 處方이라는 데에서 李濟馬의 見解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sup>8)</sup>.

한편 醫道를 具備得之하지 못하고 具備傳之한 許浚을 爲首로 올려 놓은 것은 中國에서 출발한 後世方의 證治醫學이 張仲景과 朱肱에 의해 이어왔지만, 韓國의 醫學은 許浚에 의해 醫道가 傳혀져 獨創의인 學問인 四象醫學이라는 결실까지 맺을 수 있었으므로, 許浚을 張仲景, 朱肱과 함께 높게 評價하게 된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이 東武는 5000年 韓醫學의 역사를 자기만의 독특한 醫史學觀으로 韓醫學의 經典인 『黃帝內經』 보다는 臨床書籍인 『傷寒論』을 中心으로 醫道의 始興期, 中興期, 復興期인 3 단계로 나누어 醫家들의 功勞를 再解釋하였고, 이는 虛妄한 理論體系 보다는 實證的인 臨床經驗을 重視한 東武의 實踐의 醫學觀을 表現해 내고 있다.

## 2. 傷寒六經에 대한 考察

『東醫壽世保元』에서 『傷寒論』 및 傷寒家들의 위치는 前述한 바와 같이 李濟馬로부터 重要視 되어 왔다. 이에 著者は 傷寒家들이 『傷寒論』을 解釋하는데 있어서 끊임 없이 提起 되었던 傷寒

六經의 概念을 糾明해 보고자 한다.

### (1) 『傷寒論』에 대한 研究過程

韓醫學에 있어서의 辨證論治의 思想이 이미 『黃帝內經』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傷寒論』이 비로소 그 理論的 體系를 確立하고 『黃帝內經』에서 미비했던 藥物의 應用에 대하여 臨床實證을 했다고 하겠다<sup>10)</sup>.

『傷寒論』은 『黃帝內經』, 『難經』의 理論을 基礎로 漢代 以前의 醫學을 總괄하였으며, 人體가 風寒의 邪를 感受한 後에 발생하는 臟腑, 經絡의 病理變化와 臨床證候의 特徵을 파악하여 外感疾病의 발생과 發展의 變化規律, 治療原則, 藥劑의 配伍方法 등에 엄밀한 系統을 세워 理, 法, 方, 藥에 一貫性을 지녀 外感疾病과 기타 雜病의 辨證施治에 基本規律이 되어 後世 醫學發展에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sup>11)</sup>.

그러나 『傷寒論』은 본래 理論의 闡述이 많지 않고 여러 證候의 虛實寒熱 등 病變의 性質과 部位에 대해 具體的인 分析과 指示가 없었다. 따라서 그 治療原則과 使用方藥이 疾病의 證候와 理論的으로 완전히 聯關되지 않아 진정한 意味의 辨證論治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특히 이 冊은 條文式으로 서술되어져 있고 계통성이 적어 일반 의사들이 具體的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王叔和가 비록 정리를 했지만 魏晉南北朝에서 隋唐五代까지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다<sup>12)</sup>.

『傷寒論』에 관한 研究는 漢以來로 唐代까지는 孫思邈, 王燾 등이 千金方 및 外臺秘要 등에서 引用하기는 하였으나, 註釋이나 討論 등은 없었고<sup>13)</sup>, 『傷寒論』에 대한 본격적인 研究는 宋代에 이르러서 시작되었고, 이후에 더욱더 깊은 研究가 進行되어 『傷寒論』의 辨證論治 精

8) 朴性植, 宋一炳. 前掲書: 1-33.

9) 宋一炳. 東醫寶鑑을 四象醫學 領域에서 살펴본 特徵과 끼친 影響. 四象體質醫學會誌. 1992;4(1):149-158.

10) 朴贊國, 洪元植. 仲景의 生涯와 後世傷寒家の 六經辨證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81;4(1): 193-202.

11) 金秀烈, 尹暢烈. 傷寒六經에 대한 諸家說. 大田大論文集. 1994;3(1):5-38.

12) 洪元植. 前掲書: 145.

13) 朴贊國, 洪元植. 前掲書: 193-202.

神은 廣範圍하게 擴大普及되었다. 이 과정에서 『傷寒論』에 관한 수 많은 研究書籍들이 나왔다. 그러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理論의 闡述이 적고 具體적인 명시가 없었으므로 인해 各 注家마다 主張하는 바가 달랐다<sup>14)</sup>.

元, 明, 淸을 지나는 동안에 『傷寒論』의 六經辨證論治의 思想은 단순한 傷寒病의 範疇를 넘어 모든 雜病을 包含하게 되었고, 여러 학자들은 『傷寒論』을 각기 理論과 목적에 따라 分類整理함으로 인하여 『傷寒論』의 實用性이 더욱 높아졌다<sup>15)</sup>.

(2) 傷寒六經의 起源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을 六經이라 하며, 仲景이 『傷寒論』에서 이를 辨證의 綱領으로 삼은 까닭에 일반적으로 『傷寒論』의 三陰三陽辨證을 일컬어 六經辨證이라 한다. 그러나 정작 仲景 자신은 『傷寒論』에서 三陰三陽病을 論함에 단지 “辨太陽病脈證并治. 辨陽明病脈證并治” 등이라 하고 “太陽經病”, “陽明經病”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또한 『傷寒論』 전체에서도 “六經”이란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sup>16)</sup>.

실제로 『黃帝內經』에서 最初로 “六經”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黃帝內經』에서는 『素問』에 4번, 『靈樞』에 7번, 모두 11번에 걸쳐 나오는데, 대체로 全身 氣血循環의 통로인 手足三陰三陽經脈의 總稱으로 使用되었으며, 그 內容으로 人體의 經絡氣血은 물론이고 臟腑의 氣血과 外在하는 風熱濕火燥寒의 六氣를 포괄하고 있다<sup>17)</sup>.

『傷寒論』의 三陰三陽이 六經이라 불리게 된 것은 宋代의 朱肱으로부터 비롯 되었다. 즉 宋代 朱肱이 그의 著書인 『南陽活人書』에서 처음으로 “太陽經, 陽明經, 少陽經, 太陰經, 少陰經, 厥陰經”이라 하여 “經”자를 붙여 썼고, 그 이후에 淸代의 汪琥가 이에 積極적으로 호응하여

“仲景의 書는 단지 六經을 分하고, 手足을 말하지 않았으니”라 하였는데, 이것이 『傷寒論』의 辨證體系를 六經辨證이라 이름하게 된 起源이다<sup>18)</sup>.

(3) 傷寒六經에 대한 各家學說

① 朱肱

朱肱의 號는 無求子이고, 北宋·浙江人이며, 宋나라 元祐(1088)에 進士가 되었다. 그는 傷寒學說에 대해 數十年 間 研究하였는데, “傷寒論”을 各 證에 따라 分類하여 100가지 질문에 答하는 형식으로 『無求子傷寒百問』을 完成하였으며, 그 書名은 後에 『南陽活人書』로 바뀌었다<sup>19)</sup>.

朱氏의 『傷寒論』 研究의 特徵은 經絡으로서 三陰三陽을 論하고 陰陽表裏를 들어 辨證의 大綱을 삼은 것이다. 동시에 또한 辨病과 辨證을 強調하였다<sup>20)</sup>. 그는 傷寒六經病의 證과 脈, 傳變治法을 論하면서 “傷寒을 다스림에 먼저 經絡을 알아야 되니 經絡을 알지 못하면, 어두운 밤길을 춧불없이 가는 것과 같아서 邪氣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sup>21)</sup>고 하여 經絡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傷寒六經을 足三陽三陰經으로 보고 六經에 따라 傷寒을 辨病하였다.

따라서 朱肱은 經脈을 重視한 나머지 六經病의 綱領을 仲景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 太陽病 : 發熱惡寒 頭項痛 腰脊強 脈尺寸俱弦浮
- 陽明病 : 身熱目疼 鼻乾 不得臥 脈尺寸俱長
- 少陽病 : 胸脇痛而耳聾 口乾咽乾 往來寒熱而嘔, 脈尺寸俱弦
- 太陰病 : 腹滿 噎乾 手足自溫 或 自利不渴 或腹滿時痛, 脈尺寸俱沈細
- 少陰病 : 或口燥舌乾而渴 或口中和而惡寒, 脈尺寸俱沈

14) 丁彰炫, 朴贊國. 仲景 『傷寒論』의 六經實質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3;7(1):232-268.

15) 朴贊國, 洪元植. 前掲書: 193-202.

16) 瞿岳云. 前掲書: 76.

17) 瞿岳云. 前掲書: 76.

18) 瞿岳云. 前掲書: 76.

19) 朱肱. 增註類證活人書. 南山堂, 서울, 1987: 3.

20) 金秀烈, 尹暢烈. 前掲書: 5-38.

21) 朱肱. 前掲書: 55.

-厥陰病：脣青舌卷 煩滿囊縮，脈尺寸俱緩 이는 『素問·熱論』의 傷寒六經病證과 비교해 보건데 내용이 거의 같고, 이들은 모두 經脈 循行部位에 관련된 病證을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2)</sup>. 그러므로 仲景의 본뜻에 완전히 附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一家의 學說로, 學술을 널리 퍼서 이름을 떨쳤으며, “經絡說”을 처음 創始하여 傷寒 三陰三陽의 實體를 論했다는 것은 價値가 있는 것이며, 後世에 미치는 影響도 비교적 컸다<sup>23)</sup>.

이와 같이 朱肱은 『傷寒論』의 방만한 條文들을 六經이라는 綱領으로 포괄하여 비로소 『傷寒論』에 입각한 辨證論治體系를 確立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仲景藥方, 缺者甚多, 至於陰毒傷寒, 時行溫疫, 溫毒之類, 全無方書”라 하고 『千金方』, 『外臺秘要』, 『太平聖惠方』 등 書에서 관련된 方劑 100餘首를 추려 내어 傷寒의 治法을 攄했다<sup>24)</sup>.

清代의 徐靈胎는 “宋人의 書는 『傷寒論』을 發明하여 사람들이 지니고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는데, 仲景에 대해 가장 功이 큰 것은 『活人書』가 제일이다”<sup>25)</sup>라고 하여 朱肱을 높이 評價하였다.

## ② 龐安時

宋代의 龐安時は 『敘論』에서 말하기를 “天寒”이 折하는 바는 則 陽氣를 折하는 것이다. 足太陽은 모든 陽氣를 主管하여 그 經은 脊膂를 挾하며 五臟六腑의 俞를 꿰뚫고 腦로 上入하므로 始作에 있어서 太陽이 受病하는 것이다. …… 陽經이 먼저 病을 받으므로 다음으로 陰經에 入한다. 陽은 主生하므로 足太陽水는 足陽明土로 傳하고 土는 足少陽木으로 傳하여 微邪가 된다. 陰은 主克하므로 傳하고 土는 足少陰水로 傳하고, 水는 足厥陰木으로 傳하여 第六, 七日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足厥陰에 傳

할 것이니, 肝木은 반드시 移氣하여 脾土를 克하고 脾는 다시금 賊邪를 받게 되므로 五臟六腑는 모두 危殆하게 된다”<sup>26)</sup>라고 하여 六經을 『黃帝內經』의 經으로 認識하였다.

## ③ 成無己

金元時代의 成氏は 傷寒의 六經을 『黃帝內經』에서 말하는 經絡의 經으로 認識하였는데, 이는 成氏가 張仲景의 『傷寒論』의 自序中에서 『素問』, 『九卷』, 『八十一難經』 등의 著作을 이용하여 著述했다고 하는 內容을 보고 매번 『黃帝內經』, 『難經』 등의 理論을 引用하여 仲景의 學을 밝혔기 때문인 것이다<sup>27)</sup>. 그는 『辨脈法第一』篇에서 말하기를 “傷寒의 病은 一日太陽, 二日陽明, 三日少陽, 四日太陰, 五日少陰, 六日厥陰, 六일에 이르러서는 傳經이 끝이 난다. 七日에는 나아가 하는데 七日에 낮지 않으면 이를 再傳이라 한다. 『經』에 이르기를 再傳經이라는 것은 다시금 太陽에서부터 傳하여 十二일에 이르면 다시금 厥陰에 이르러 傳經이 끝나서 十三일에 나아가 한다. 十三일에 낮지 않으면 이를 過經이라 한다”라 하였고, 또 그는 厥陰病篇에서 이르기를 “手의 三陰三陽은 手十指에서 相接하며 足三陰三陽은 足十指에서 相接한다”<sup>28)</sup>라 하여 成氏가 說明한 『傷寒論』의 六經은 『黃帝內經』의 經脈임을 알 수 있다.

## ④ 方有執

明代 方氏의 六經은 臟腑와 四肢百骸를 包含한다고 認識하였고, 모든 病은 經絡을 떠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大蓋 學者들은 『傷寒論』의 六經을 經脈의 經으로 認識하거나, 『黃帝內經·熱論』의 六經으로 認識하여 그 症狀이 전혀 相通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였다”하였고, 『圖說』에서는 “『傷寒論』의 六經의 經이 經絡의 經과 不同하다”며 “六部”라고 하였다. 왜냐하

22) 朴贊國, 洪元植. 前掲書: 193-202.

23) 金秀烈, 尹暢烈. 前掲書: 5-38.

24) 裴沛然, 丁光迪.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55.

25)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五州出版社, 臺北, 1985:117.

26) 那拓祺 外. 傷寒總病論譯評. 湖北科學技術出版社, 湖北, 1987:3.

27) 金秀烈, 尹暢烈. 前掲書: 5-38.

28) 葉成炳 外. 傷寒明理論闡釋.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 1988:8, 20.

면 經絡으로 認識하면 經에 病이 局限될 것이고, 部로 하면 經絡臟腑를 包含할 수 있고, 根據가 되는 部分과 施治가 있기 때문이다. 後에 慈溪 柯韻伯이 『傷寒論翼』을 지었는데, 六經을 疆界로 삼았으니 方氏에 根源을 둔 것이다<sup>29)</sup>.

#### ⑤ 張志聰

清代의 張志聰은 六氣로 六經을 분석하고, 臟腑 및 皮膚까지를 六氣에 연계시켜 傷寒六經을 論하였다. 이는 朱肱이 六經脈病證分類에서 다만 傷寒의 病證分類에 主眼點을 둔데에 비하여, 張志聰은 六氣로서 病邪가 어떻게 人身에 侵入하였는가에 對한 病機的 發明에 注力하였다. 즉 外邪가 人身에 침입하면, 經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經絡을 外衛하고 있는 經氣가 먼저 受病하고 그후에 經脈, 臟腑가 受病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六經風寒은 그 疾病이 六氣에 있는 것이요, 經絡에 있는 것이 아니다<sup>30)</sup>. 이와 같이 張氏의 六經氣化爲病說은 생리적인 方面에서 人身六氣의 生産과 分布, 運行 등의 狀況을 說明하려 시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傷寒 三陰三陽의 病理機轉 또한 이로써 說明하였는데, 이는 後世人이 傷寒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고 있다<sup>31)</sup>.

#### ⑥ 柯琴

清代의 柯琴은 六經地面學說을 主張하여, 『傷寒論』 六經의 意味에 대하여, 옛 사람들은 經絡으로 解釋하기도 하고, 運氣로 解釋하기도 하였으나, 柯氏는 이들과 다른 의견을 보였으니, 六經은 지역의 境界와 같은 것으로 經絡은 六經의 道路가 된다고 認識하였고, 六經으로 百病을 보았다<sup>32)</sup>.

#### ⑦ 尤怡

清代의 尤怡는 傷寒六經에 대하여 『傷寒貫

珠集』<sup>33)</sup>에서 이르기를 “사람의 十二經絡은 본래 서로 통해 있으며 各各 境界가 있으니, 이 때문에 邪氣를 받게 되면 各各 보이는 바의 症狀과 脈이 있게 되는 것이다. 仲景이 太陽脈篇의 症狀를 脈浮, 頭項強痛, 惡寒이라고 하였다. 무릇 太陽은 三陽의 表에 있으며, 그 脈은 이마로 올라가서 睛수리에서 交叉하며 腦로 入絡하여 項으로 다시 갈라져서 나온다. 그러므로 그 初病은 中風과 傷寒을 막론하고 그 脈은 이와 같다”라고 하였고, 또한 말하기를 “이 太陽의 綱領은 이와 같으나 陽明條의 밑에는 口乾, 午熱의 文章이 없다. 少陽證 中에는 寒熱往來의 條目이 없고, 少陰에는 欲寐만 있고, 太陽, 厥陰에는 臟病을 많이 이야기하였으니, 學者는 마땅히 他條를 참고할 것이니 하나에만 執着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傷寒六經을 經絡의 學說로 說明하면, 六經 提綱에 대해서는 全面的이지 못하므로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 ⑧ 陳念祖

清代 陳念祖의 傷寒論淺注<sup>34)</sup>에서 “仲景 『傷寒論』의 六經은 마땅히 區分되어야 하는 것이나 王叔和는 『內經·熱病』의 문장을 “序例”로서 『傷寒論』의 머리에 두어서 論中의 뜻을 오히려 분명치 못하게 하였다”하고, “이 冊은 비록 傷寒을 論하고 있지만 百病이 그 中에 있다. 提綱을 주로 삼고 論中에서 아울러 나타나는 證을 參考한다면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傷寒六經은 內經과 區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傷寒六經의 綱領이 百病을 統率하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 3. 『東醫壽世保元』에서 活用된 傷寒六經의 實例에 대한 考察

#### (1) 傷寒六經綱領의 採用

29) 金秀烈, 尹暢烈. 前掲書: 5-38.

30) 朴贊國. 洪元植. 前掲書: 193-202.

31) 金秀烈, 尹暢烈. 前掲書: 5-38.

32) 朴贊國. 洪元植. 前掲書: 193-202.

33) 尤怡. 傷寒貫珠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78: 2-3.

34) 陳修園. 陳修園醫書七十二種.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1985:6, 8, 13.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는 六經의 綱領에 대하여

“古人 以六經陰陽 論病故 張仲景 著傷寒論 亦以六經陰陽 該病證而  
以頭痛 身疼 發熱惡寒 脈浮者 謂之 太陽病證  
以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寒熱往來 頭痛 發熱 脈弦細者謂之少陽病證  
以不惡寒 反惡熱 汗自出 大便秘者 謂之陽明病證  
以腹滿時痛 口不燥 心不煩而 自利者 謂之太陰病證  
以脈微細 但欲寐 口燥 心煩而 自利者 謂之少陰病證  
以初無腹痛自利等證而傷寒六七日 脈微緩 手足厥冷 舌卷囊縮者謂之厥陰病證”

라고 規定하였다.

이것은 朱肱이 처음으로 提示한 傷寒六經 綱領<sup>35)</sup>의 分類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비록 내용에 있어서 東武는 朱肱의 經絡 및 脈象에 根據한 六經 分類를 따르지 않고, 各 六經의 陰證, 陽證 등의 症狀을 爲主로 分別하였으나, 東武가 傷寒病을 다루는데 있어서 단지 傷寒方이나 病證의 일부만을 取한 것이 아니라 六經綱領의 분류체계를 전적으로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東武는 해당 病證을 다시 四象人別로 “三陰病證 皆少陰人病證, 少陽病證 卽 少陽人病證, 太陽病證 陽明病證則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病證 均有之而少陰人病證 居多”와 같이

分類하고 歸屬시켜, 四象人 病證에 있어서 傷寒六經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東武는 仲景의 思想을 뛰어 넘어 體質에 따른 辨證體系를 完成시키게 된 것이다.

## (2) 四象人의 病證區分에 있어서 傷寒六經 辨證體系의 應用

『傷寒論』에서는 外感 疾病의 症狀를 8개의 辨證綱領과 6개의 證候群으로 歸納하여 복잡한 病變을 辨別하였다. 즉 八綱으로 疾病의 屬性, 病位, 邪正의 消長, 病態의 表現을 辯論하고 疾病의 發展過程 中에 일어나는 病情을 詳細하게 分析하여 認識함으로 말미암아 立法方藥에 法度가 있게 되니, 이에 外感病을 진찰하는데 綱領的 法則을 提示했을 뿐만 아니라, 臨床 各科의 辨證論治의 規律을 示唆하고 있어, 後世醫家들에 대해 啓發과 指導意義가 있다고 하겠다<sup>36)</sup>.

柯琴은 “원래 仲景의 六經은 百病을 위해 立法한 것으로 傷寒一科만 전문으로 한 것이 아니요, 傷寒雜病의 治療가 두 가지 理致가 없고 다 六經의 節制에 歸屬된다”<sup>37)</sup>라고 하였고, 林輝鎭도 “『傷寒論』은 辨證論治의 書요, 傷寒과 雜病을 함께 論한 冊이요, 病을 論하여 傷寒을 辨明한 것이지 傷寒一病을 위해 說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여 仲景의 辨證論治가 外感病人 傷寒 뿐만 아니라 一切의 雜病에 適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仲景의 序文에서도 “雖未能盡愈諸病 이라도 庶可以見病知源이니 若能尋余所集이면 思過半矣리라”고 하여 疾病을 살피는 데 있어서 辨證論治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六條病證中 三陰病證 皆少陰人病證也 少陽病證 卽 少陽人病證也 太陽病證 陽明病證則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病證 均有之而少陰人病證 居多也”라 하여 『傷寒論』의 六經辨證 體系가 『東醫壽世保元』에서는

35) 朱肱이 提唱한 六經病의 綱領

太陽病：發熱惡寒 頭項痛 腰脊強 脈尺寸俱弦浮

陽明病：身熱目疼 鼻乾 不得臥 脈尺寸俱長

少陽病：胸脇痛而耳聾 口乾咽乾 往來寒熱而嘔，脈尺寸俱弦

太陰病：腹滿 噎乾 手足自溫 或 自利不渴 或腹滿時痛，脈尺寸俱沈細

少陰病：或口燥舌乾而渴 或口中和而惡寒，脈尺寸俱沈

厥陰病：脣青舌卷 煩滿囊縮，脈尺寸俱緩

36) 俞長榮. 傷寒論匯要分析. 福建科技出版社, 福州, 1984:2.

37) 柯琴. 傷寒來蘇集(傷寒論翼. 自序).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6:158.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이라는 四象人의 體質 概念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辨象辨證思想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를 四象人別로 나누어 敍述해 보자면,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모든 病症을 우선 表病과 裡病으로 나누고 寒證과 熱證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少陰人에게 發하는 表病은 腎受熱表熱病으로, 裡病은 胃受寒裡寒病으로 요약되고, 少陽人에게 發하는 表病은 脾受寒表寒病으로, 裡病은 胃受熱裡熱病으로 요약되며, 太陰人에게 發하는 表病은 胃脘受寒表寒病으로, 裡病은 肝受熱裡熱病으로 요약되고, 太陽人에게 發하는 病은 外感腰脊病과 內觸小腸病으로 要約된다고 하여 각 體質의 病證을 二大別로 分類하고 있다<sup>38)</sup>.

體質別 表病과 裡病으로 區分된 8大 綱領은 다시 세부적인 病證으로 分類된다. 少陰人 表病人 腎受熱表熱病은 鬱狂病(陽明病胃家實病), 亡陽病(陽明病脾弱病), 太陽病 厥陰證으로 나뉘고, 裡病人 胃受寒裡寒病은 太陰證, 少陰證으로 區分되며, 少陽人 表病人 脾受寒表寒病은 少陽傷風證, 結胸病, 亡陰病으로 나뉘고, 裡病人 胃受熱裡熱病은 胸膈熱證, 消渴病, 盜汗, 陰虛證으로 區分된다. 太陰人의 表病人 胃脘受寒表寒病은 背椎表病證, 太陰人 寒厥證, 胃脘寒證 溫病으로 나뉘고, 裡病人 肝受熱裡熱病은 陽毒燥泄證, 燥熱證, 陰血耗竭證으로 區分되며, 太陽人의 表病人 外感腰脊病에는 解休證, 裡病人 內觸小腸病에는 噎膈反胃證으로 구성되게 되었다<sup>39)</sup>.

이중에서 少陰人 表病과 裡病의 모든 病證은 『傷寒論』의 病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少陽人 表病의 少陽傷風證, 結胸病, 裡病의 胸膈熱證 등도 六經辨證體系을 근거로 질병을 辨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傷寒論』의 病證에 포함되지 않는 四象

人의 病證에 대해 『醫源論』에서 “其論病論藥 全局 都少陰人 脾胃水穀中出來而 少陽人 胃熱證藥 間或有焉 至於太陰人病證則 全昧也”라고 하여 少陰人 및 少陽人에 있어서의 病證藥理는 『傷寒論』에서도 밝혀져 있으나, 太陰人 및 太陽人에 대해서는 全無하기에 모든 病證을 포괄해야 할 體質辨證體系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東武는 “三陰三陽者 辨證之同異也 其理 在於腹背表裏而 不必究其經絡之變也”라고 하여 辨證에 사용된 六經의 三陰三陽은 朱肱 以後로 提起된 經絡學의 說明을 탈피하여 四象人의 腹背表裏에서 이치를 探求해야 한다고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東武의 이러한 主張은 辨證論治 思想을 담은 『傷寒論』 및 經絡으로 六經의 實質을 主張한 後世醫家들의 思考를 뛰어 넘어 東武만의 獨創의 三陰三陽의 六經分類 體系를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V. 考 察

以上과 같이 考察해보건데, 漢代 以前의 醫學을 總括하여 著述된 『傷寒論』은 理論 闡述이 적은 條文 形式으로 나열되어 있고, 六經의 綱領인 傷寒六經에 대한 具體의 言及이 不足하여 漢代 以來로 唐代까지는 條文의 引用만 있을 뿐 實際의 註釋이나 討論 등의 研究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宋代의 朱肱에 이르러 六經이 『黃帝內經』의 足三陽三陰經으로 再解釋되어 臨床에 있어서 辨證의 大綱으로 確立되면서, 방만한 條文들을 六經이라는 綱領으로 包括시켜 비로소 『傷寒論』에 입각한 辨證論治 體系를 確立할 수 있었다. 비록 朱氏가 提示한 六經病의 綱領이 仲景의 그것과는 다르나, 그의 이러한 學問的인 成果는 後代 傷寒家들의 多樣的 理論的 誕生 背景이 되었다.

朱肱의 이러한 學問的 業績으로 漢代 以來 觀念的인 思想에만 머물러 있던 醫學 수준은 症狀의 分類에 따라 該當 證에 대한 體系的인 治療를 導出し킨 辨證體系의 確立을 통해 한

38) 殷鍾元, 洪元植, 殷鍾元, 洪元植. 傷寒論이 後世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5;8(1):197-248.

3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集文堂, 서울, 2004:204-306.

단계 跳躍하게 되었다. 때문에 東武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에서 “以醫家勤勞功業論之則 當以張仲景 朱肱 許浚爲首而”라고 하여 朱肱의 功勞를 張仲景 및 許浚과 同一하게 높게 評價하였던 것이다.

東武는 朱肱이 提示한 六經綱領의 기틀을 採用하여 獨自의인 六經綱領을 闡明했을 뿐만 아니라, 四象人의 病證區別에 있어서도 傷寒六經의 辨證體系를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四象體質이라는 새로운 理論體系를 導出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 V. 結 論

傷寒六經을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과 『傷寒論』의 聯關性에 대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게 되었다.

1. 『傷寒論』의 “六經”이 辨證의 大綱으로 확립된 것은 宋代의 朱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 『傷寒論』의 六經辨證 體系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에서도 중요시 되었으며, 四象人別 辨證體系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
3. 東武는 朱肱이 傷寒六經으로 辨證體系를 확립시킨 業績을 인정하여 『醫源論』 에서 歷代醫家들의 功勞로 朱肱을 張仲景 및 許浚과 同一하게 높게 評價하였다.
4. 東武는 朱肱이 提倡한 “傷寒六經”이라는 概念을 통해 『傷寒論』을 정확하게 理解하게 되었고, 『傷寒論』을 뛰어 넘는 四象醫學이라는 새로운 醫學體系를 誕生시키게 되었다.

## V. 參考文獻

1.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대한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992;4(1):5-28.
2. 瞿岳云. 中醫理論辯. 湖南科學技術出版社, 湖南, 1990.
3.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4.
4. 金敬堯. 李濟馬의 醫學史觀에 대한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994;6(1):11-19.
5.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993;5(1):1-33.
6. 宋一炳. 東醫寶鑑을 四象醫學 領域에서 살펴 본 特徵과 끼친 影響. 四象體質醫學會誌. 1992;4(1):149-158.
7. 朴贊國, 洪元植. 仲景의 生涯와 後世傷寒家の 六經辨證에 관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81;4(1):193-202.
8. 金秀烈, 尹暢烈. 傷寒六經에 대한 諸家說. 大田大論文集. 1994;3(1):5-38.
9. 丁彰炫, 朴贊國. 仲景『傷寒論』의 六經實質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3;7(1):232-268.
10. 朱肱. 增註類證活人書. 南山堂, 서울, 1987.
11. 裘沛然, 丁光迪.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2.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五州出版社, 臺北, 1985.
13. 那拓祺 外. 傷寒總病論譯評. 湖北科學技術出版社, 湖北, 1987.
14. 葉成炳 外. 傷寒明理論闡釋. 四川科學技術出版社, 四川, 1988.
15. 尤怡. 傷寒貫珠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78.
16. 陳修園. 陳修園醫書七十二種.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1985.
17. 俞長榮. 傷寒論匯要分析. 福建科技出版社, 福州, 1984.
18. 柯琴. 傷寒來蘇集(傷寒論翼. 自序).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6.
19. 殷鍾元, 洪元植, 殷鍾元, 洪元植. 傷寒論이 後世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5;8(1):197-248.
2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集文堂, 서울, 2004.